

제5회 경기도 시낭송의밤 <시가예찬 2015>

復其初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



2015년 10월 10일(토) 17시 30분
파주 자운서원

시가예찬 2015_복기초 復其初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



모두가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이길 바라며....

경기도시낭송의밤은

첫 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시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행사를 치렀고 남한산성에서 사업의 브랜드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성시가” 가 탄생했고 지역인문학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지방문화원이 지역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 서자!” 고 선언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문학축제를 지향하면서 최종적으로 <시가에찬>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시(詩)는 삶의 본질, 즉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기존에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언어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때문에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을 시를 통해 모색한다는 취지는 정당합니다. 특히 올해는 율곡 이이의 삶과 철학에 기초한 바탕위에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나 그 이전이나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개혁, 진보, 변화의 의지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은 후학에게 “스스로 처음이 되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 너희들이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시가에찬>이 남한의 최북단인 이곳 파주 자운서원에서 열리는 작은 외침일지라도 이 곳에서 스스로 처음이 되는 역사적인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문화융성은 이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류가 자본과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 의미를 가지려면 율곡이 이야기한 ‘복기초’ 의 정신이 진정한 한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처음이 되십시오.

그것이 율곡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시대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 경 동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제5회 경기도 시 낭송의 밤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5’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비움을 시작하는 계절이자, 사색의 시간입니다.

시(詩)는 짧은 언어로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슴에 담아 둘 향기를 품고 있고, 이 향기는 평생을 걸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를 읊는 일은 삶에 여유를 갖게 할 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 색다른 상쾌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시(詩)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점점 바쁘고 각박해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5’ 행사는 경기도를 소재로 시문학의 작품 속에 묘사된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적 소통의 자리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민의 문학적 정체성 및 저력을 발견하고 널리 알리어 경기도 문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 낭송의 밤은 소중하고 기대 또한 큼니다.

詩(시)를 통해 사념(思念)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시낭송과 공연을 위해 출연해주신 출연진과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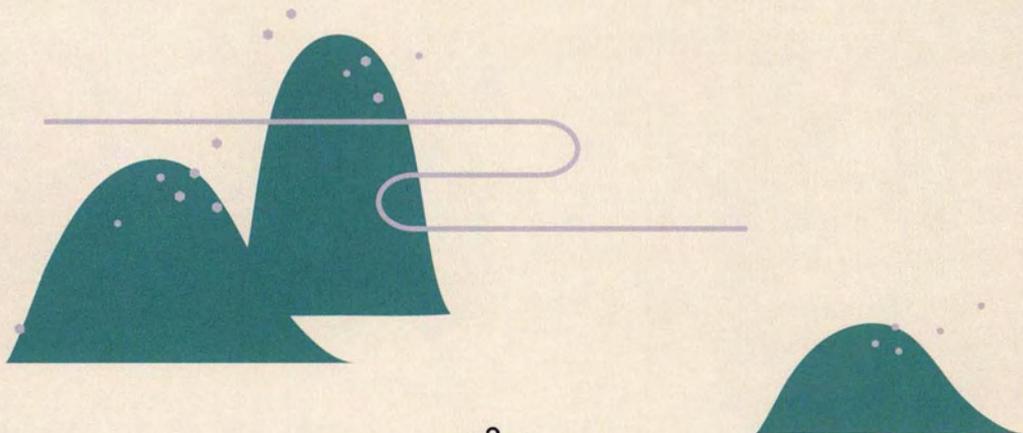
선선한 바람과 풀벌레 우는 소리로 깊어지는 가을밤을 아름다운 운율로 채워 줄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2015」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는 아름다운 운율과 곡선을 통하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감싸 안으며,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2015」을 통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의 정신적 여유를 갖고 깊어가는 가을밤의 싱그러운 정취를 가슴에 듬뿍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시를 낭송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분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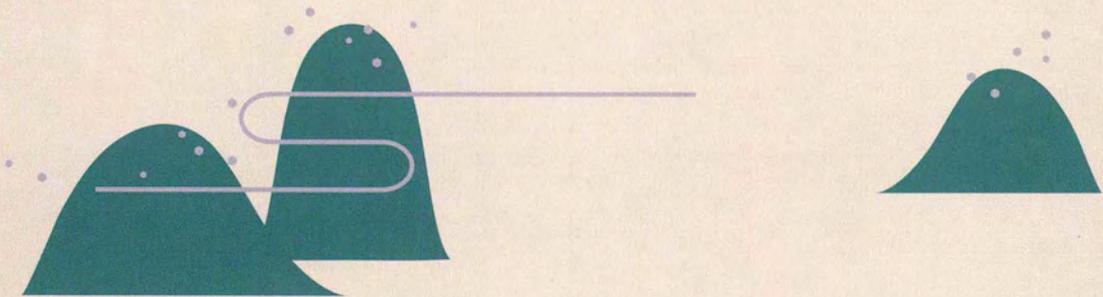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시낭송의 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가예찬2015는 시에 녹아있는 경기도인의 삶의 모습을 느껴보고, 경기도 문학의 정체성과 저력을 발견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문화가 있는 삶, 그래서 여유를 주고 여운을 남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물해 오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가 파주 자운서원에서 열리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운서원은 율곡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서원입니다. 율곡 선생은 8세에 화석정에 관한 시를 지은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이자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율곡 선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운서원과 이웃해 있는 율곡선생님의 가족묘, 율곡선생기념관, 신도비 등이 있는 율곡선생유적지는 가을에 더욱 운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시낭송의 밤이 열리기 때문에 시향은 더욱 오랜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문화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위로이자 위안입니다. 또한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창조적 힘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원이 함께해 주시고, 그 중심 역할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문화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파주시장 이재홍

높푸른 하늘과 오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열리는 제5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 《詩歌禮讚 2015》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파주의 자람이자 울곡선생의 본향인 이곳 울곡선생유적지를 찾아주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학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심장의 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詩는 무한한 상상력과 이미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모든 문학의 源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첨단기술이 출현하는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사람들은 갈수록 문학을 멀리하고 있는 세태이지만, 역설적으로 참신한 감각과 상상력이라는 인문학적 가치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부응하여 문학적 소통을 통해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둠이 깔리는 가을저녁, 紫雲山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자리한 고풍스런 멋이 배인 문화유적에서 시와 노래, 몸짓이 만나는 인문학 콘서트로 진행되는 《詩歌禮讚 2015》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절로 가득 차오르며, 그 주제인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復其初’ 처럼 차분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깊어가는 사색의 계절에 인문학적 정체성 확립과 자기 성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염상덕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장님과 우관제 파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낭송과 공연을 위해 애쓰신 출연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풍성한 계절에
「시가예찬 2015」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의장 박재진

아울러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기울여 오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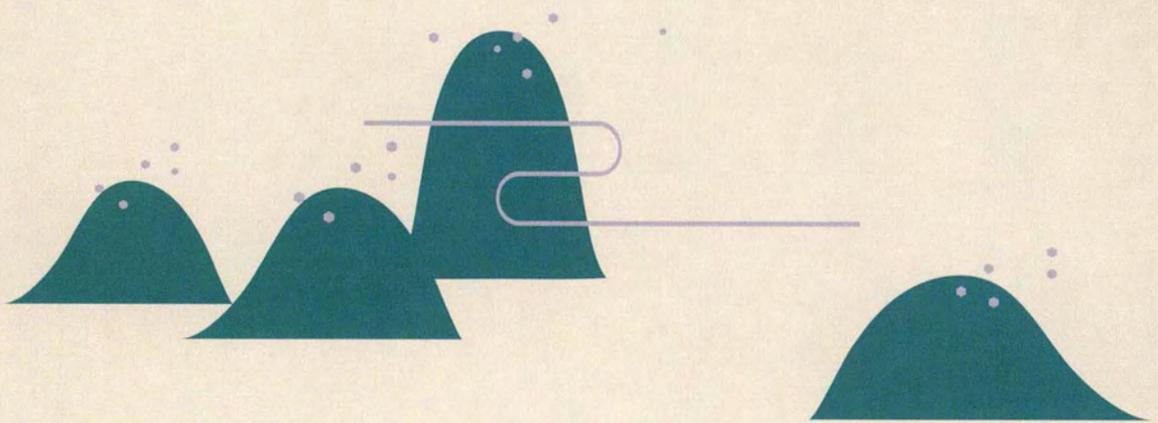
선현의 얼과 파주 문화의 기운이
흐르는 자운서원에서 시가예찬 2015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썸록 본 행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빛을 더욱 발하고
시와 인문학이 번성하는 행사로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애쓰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관계자 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part 1.

마른수수깡으로 서서

- ◆ 율곡추모시창..... 대한시조협회 파주시회
- ◆ 또 비가오고_이성복 作.....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 ◆ 마른수수깡으로 서서_원희석 作
..... 김춘경 동두천문화원장, 양장평 안성문화원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이영희 광명문화원장
- ◆ 시인과의 만남..... 문태준 시인
- ◆ 재즈로 응답하다_초우..... 재즈 보컬리스트 이선경

part 2.

보여주는 기쁨의
아름다운 때

- ◆ 어린이백일장 당선작 3편..... 초. 중. 고등부
- ◆ 못잊어_김소월 作..... 성악가 양수정, 최재훈
- ◆ 청산도_박두진 作..... 파주문인협회 박성락
- ◆ 독도만세_이근배 作..... 파주시낭송회 최매희
- ◆ 철조망에 걸린 편지_이길원 作..... 파주시낭송회 정영기

part 3.

노래하라 춤추라.
지치지 말고

- ◆ 동백꽃_문정희 作..... 안무 전미숙, 무용가 임샛별
- ◆ 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흐르고_신경림 作
..... 경기도의원 김동규, 박용수, 최종환, 한길룡
- ◆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_함민복 作
..... 파주문학회 성지오, 곽민숙, 김충임
- ◆ Mo' Better Blues
..... 하우스밴드 + 색소폰 연주자 구민상

part 1. 마른수수깥으로 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때 감각의 문이 열림을



울곡추모시창

시조창: 이명옥
시, 작곡: 조문한

동방예국 오랜옛터에 울곡선생 태어나시어
겨레의 스승되니 그 마음 기리받드리라
겨레의 구국의 정신인 눈부신 학문의 탑



대한시조협회 파주시회

8회째 전국시조창 경연대회를 열어 파주를 전국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있으며, 유일하게 파주에서만 부르고 있는 신사임당과 울곡선생의 시조창을 작사작곡하여 제향때마다 울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비가오고

이성복

또 비가 오고 잠 없는 육신은 집을 나선다
또 비가 오고 죽은 물고기는 하늘에서 떨어진다
또 실성한 봄은 여물지 않은 복숭아 속에서 중얼거리고
날벌레들이 서로 몸을 더듬는다
또 우는 아이의 턱이 목에서 빠져 나가고
슬픔이 괴로움을 만나 흐린 물이 된다

부패와 분노가 만나 불이 되고
사내와 계집이 만나 땀이 되어도
못 만난 것들은 뿔뿔이 강을 따라 간다
한 번 죽은 누이는 거듭 죽는다

빨리 오너라 비 오는 밤 통금을 깨고
빨리 오너라 후금의 아내여 와서
툰밥과 발톱을 섞어 떡을 만들라
얇은뱅이와 곱추를 불려 동요를 부르게 하라
늙은 왕과 송충이를 교미시켜 병든 아들을 얻게 하라
빨리 오너라 비 오는 밤 햇대에 올라 순한 닭들과 더불어 노래하라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마른 수수깡으로 서서

원희석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알곡은 사랑방 천장,
씨받이로 모두 다 주어 버리고 빈털터리 마른 수수깡
으로 서 있는 것은 아직도 흔들거리며 버티고 선 것은
단 한번의 낫질을 기다림입니다 몇 품 남은 초록빛 체
온 그것마저도 땅의 살, 마른 피부에 던져주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불타오르기 바싹 마른 온몸 던져 불
타오르기 단 한 줌 남은 뼈 태우기 위해 잔혹한 겨울
아궁이 속에서 불타오르기 마른 온몸 손뼉치며 타오
르면서 연기되어 연기되어 되돌아가기 언덕 위 멀리
보이는 잿빛 하늘로 찾아오는 새소식 날려보내며 마지
막까지 찢기 없는 연기가 되어 뼈도 없고 살도 없이
맨발로 서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똑바로 가기 아직도
내가 머리 흔들며 버티고 선 것은 내 한 몸 서럽게 불
타 올라서 햇불되고 연기되고 재가 되어서 우리나라
우리 흙으로 돌아감입니다 굵은 마디 흙 속에 곱게 내
주고 살도 없고 이름도 없이 돌아감입니다 재가 되고
거름되어 척박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꽃이 되어 피어
남입니다



김춘경 동두천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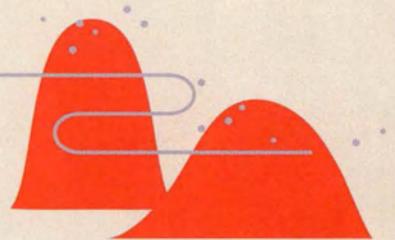
양장평 안성문화원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이영희 광명문화원장



‘문태준’
시인과의 만남

몸을 굽히지 않는다면

노랗게 잘 익은 오렌지가 떨어져 있네
붉고 새콤한 자두가 떨어져 있네
자주빛 아이리스 꽃이 활짝 피어 있네
나는 곤충으로 변해 설탕을 탐하고 싶네
누가 이걸 발견하라,
몸을 굽히지 않는다면
태양이 몸을 굽힌, 미지근한 어스름도 때마침 좋네
누가 이걸, 또 자신을 주우라,
몸을 굽혀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시인 문태준

1994년 『문예중앙』 등단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등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유심작품상, 동서문
학상, 노작문학상, 서정시학작품상 등 수상.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걸어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泉水)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나서 뒷산으로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뼈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때의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 뒤에 낫선 누군가가 알갭게 우뚝 서 있기
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시며

남세스러워라, 남세스러워라

당신이 원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뼈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
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폭 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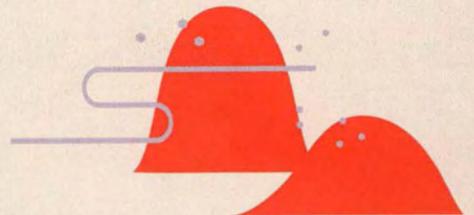
재즈로 응답하다
초우

원곡: 패티김
재즈보컬: 이선경



이선경 재즈보컬리스트

- 이선경 & Jazz Mate 리더
- 크로스오버 밴드 '열린 창 앙상블' 단원
- 라틴 오케스트라 'Nuevo Band' 단원
- 2015.02 이선경 1집 Album 『This Is Who I Am』



part 2. 보여주는 기쁨의 아름다운 때
시는,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가슴 하나 더 갖는 것



제28회 울곡문화제 어린이 백일장 당선작

초등부 당선작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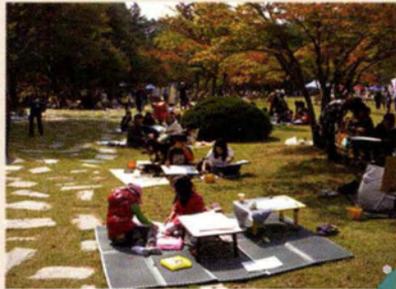
중등부 당선작 1편

고등부 당선작 1편

울곡문화제는 파주의 자람이신 울곡 선생을 위시로 한 선현들의 삶에 대한 ‘되돌아 봄’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파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 역사적, 공간적 일체감을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場)으로 자리잡아왔다.

자운서원 추향제례, 울곡사상학술 심포지엄, 유가행렬 재연, 파주 3현 유적답사 등 추념행사와 전국한시백일장, 울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울곡서예대전 등 문예행사, 길놀이, 서원음악회, 우리놀이 한마당, 전통혼례식 등의 경축공연 및 전시행사가 열리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 백일장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열린 마당을 지향한다. 아이들의 작품 활동과 관련해 가족이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다함께 즐기는 축제, 아이들에게 배움이 있는 축제가 되 고자 기획되었다.



노래로 듣는 시
못잊어

김소월 시
조성은 작곡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곳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나요?」



소프라노 양수정

- 서울신학대학교 성악과 졸업
- 최훈차콰이어 독창자
- Voice Up 합창단 독창자
- 발성코치 및 독창자로 활동



테너 최재훈

- 명지대학교 성악과 졸업
- 한세대 대학원 합창지휘 수료
- 현) 최훈차콰이어, Voce Di Anima, OS Chamber Choir 단원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똥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빠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낭송: 박성락 (파주문인협회 회원)

시인. 시낭송가. 시낭송가지도자

한국/파주문인협회 회원

시집 『화랑대소나무 악양 청학』, 『끈』,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파주문인협회

1992년 12월 12일에 창립된 (사)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는 9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파주문학 발간, 파주문예대학 개설운영, 파주시문예작품공모 등을 개최하고 파주북소리축제 행사 참여와 울곡문화제 백일장을 주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도 만세

이근 배

하늘의 일이었다.
처음 백두대간을 빛고
해 뜨는 쪽으로 바다를 앉힐 때
날마다 태어나는 빛의 아들
두손으로 받아 올리라고
여기 국토의 솟을대문 독도를 세운 것은

누 억년 비, 바람 이겨내고
높은 파도 잠재우며
오직 한반도의 억센 뿌리
눈 부릅뜨고 지켜왔거니
이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
내 나라의 혼불이 타고 있구나

독도는 섬이 아니다
단군사직의 제단이다
광개토대왕의 성벽이다
바다의 용이 된 문무대왕의 뿔이다
불을 뿜는 충무공의 거북선이다
최익현이다. 안중근이다. 윤봉길이다
아니 오천년 역사이다
칠천만 겨레이다

누가 함부로
이 성스러운 금표를 넘보겠느냐
백두대간이 젖을 물려 키운 일본열도
먹을것, 입을 것을 일러주고
말도 글도 가르쳤더니
먼 옛날부터 들고양이처럼 기어와서
우리 것을 빼앗고 훔치다가
끝내는 나라까지 삼키었던
그 죄값 치르기도 전에
어찌 감사한 허를 널름 거리는 것이냐

우리는 듣는다
바다 속 깊이 끓어오르는
용암의 소리를
오래 참아온 노여움이
마침내 불기둥으로 솟아오르려
몸부림치는 아우성을
오냐! 한 발짝만 더 나서라
이제 독도는 활화산이 되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리라
아예 침략자의 종말을 보여주리라

그렇다
독도는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이다
오늘 우리 목을 놓아 독도 만세를 부르자
내 국토의 살 한 점 피 한 방울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서로 얼싸 부둥켜 안고
영원한 독도 선언을 외치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목청을 여는
독도 만세를 부르자



최매희

- 시낭송가, 수필가
- (사) 한국 시낭송 문학 아카데미 부회장
- (사) 한국 편지가족회원
- 고양시 의정소식지 편집 부위원장
- AP21 국제교류 이사

철조망에 걸린 편지

이길원

어머니.

거친 봉분을 만들어준 전우들이
제 무덤에 철모를 얹고 떠나던 날
피를 먹은 바람만 흐느끼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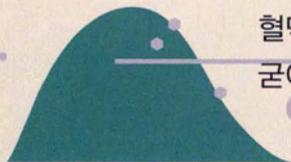
술한 전우들과 버려지듯 묻힌 무덤가엔
가시 면류관

총소리에 놀아 멎은 기차가 녹이 슬고
쓰러질 때까지 견힐 줄 모르는 길고 긴 철조망
겹겹이 둘러싸인 덕분에

자유로워진 노루며 사슴들이
내 빈약한 무덤가에 한가로이 몰려오지만

어머니

이 땅의 허리를 그렇게 묶어버리자
혈맥이라도 막힌 듯 온몸이 싸늘해진 조국은
굳어버린 제 심장을 녹일 수 없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피를 그렇게 마시고도
더워질 줄 모르는 이 땅의 막힌 혈관을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식어버린 제 뼈 위에 뜨거운 흙 한줌 덮어줄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덤가에 다투어 피는 들꽃보다
더 따듯한 손길을



정 영 기
시인. 시낭송 지도자
시집. 동이 트는 새벽
파주문화원 자문위원
시낭송문학 아카데미 대표

시낭송 아카데미

건강하고 아름다운사회가 되기를 꿈꾸며 노력하는 단체로, 시를 통해 심상의 공명이 널리 퍼져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중년층에게는 자기공명과 아름다운 서정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문학아카데미로 창작과 낭송회 등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part 3. 노래하라 춤추라. 지치지 말고

덜어 낼수록 장엄해지는 삶의 신비를



몸으로 보는 시

동백꽃

문정희

나는 저 가혹한 확산주의자가 두렵다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

동백꽃을 보라

지상의 어떤 꽃도

그의 아름다움 속에다

저토록 분명한 순간의 소멸을

함께 꽃피우지는 않았다

모든 언어를 버리고

오직 붉은 감탄사 하나로

허공에 한 획을 긋는

단호한 참수

나는 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겠다

전 존재로 내지르는

피 묻은 외마디의 시 앞에서

나는 점자를 더듬듯이

절망처럼

난해한 생의 음표를 더듬고 있다



안무 전미숙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교수
- 한국무용협회 이사
- 제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문화체육부 장관상
- 제9회 무용예술상 안무상



무용가 임새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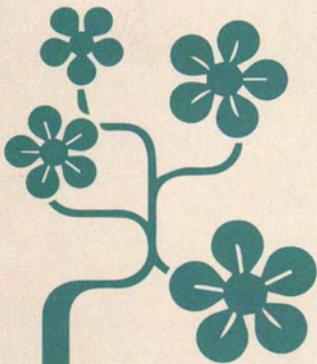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와 예술사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와 전문사 재학
- 2009 동아무용페스티벌 일반부 여자 현대무용부문 은상수상
- 전, 영국 Akram Khan Company 단원
- 현, Laboratory Dance Project 단원



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흐르고

신경림

폭풍이 덤벼들어 뒤집어놓기도 하고
짐승들이 들이닥쳐 오물로 흐려놓기도 하는
강물이 어찌 늘 푸르기만 하랴
산자락에 막혀 수없는 세월 제자리를 맴돌고
매몰찬 독에 멩경 허리를 잘리기도 하는
강물이 어찌 늘 도도하기만 하랴
제 속에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눈물을 안고 흐르는 강물이 어찌 늘
이슬처럼 수정처럼 맑기만 하랴
그래도 강물은 흐르니 세상에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노래도 되고 얘기도 되면서
강물이 어찌 늘 고요하기만 하랴
자잘한 노여움과 하찮은 시새움에 휘말려
싸움과 죽음까지도 때로는 안고 흐르는
강물이 어찌 늘 넓기만 하랴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의 힘을 빌려다 마을과 들판을
눈물로 쓸어버리기도 하는 강물이
제 몸까지 내던지며 하늘과
땅을 한바탕 뒤집어놓는 강물이
어찌 늘 편하기만 하랴



강물이 어찌 유유히만 하라
강물이 어찌 도도하기만 하라
그래도 강물은 흐르고
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흐르고



김동규 경기도의원



박용수 경기도의원



최종환 경기도의원



한길통 경기도의원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함민복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셋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작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 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에서 짜장면을 시켜 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강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 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합 송



성지오



곽민숙



김충임

파주문학회

1988년 울곡문화제, 주부기예경진
 대회 등 백일장에서 수상한 문인들
 의 모임으로 시작된 순수문학단체
 로 다수 회원들이 시와 수필로 등단
 하였고 매년 동인지 작은 글들(올해
 27집 예정)을 펴내는 등 활발한 창
 작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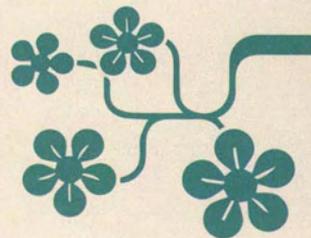
Mo' Better Blues

하우스 밴드 & 색소폰연주자 구민상



구민상 색소폰 연주자

-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Jazz Orchestra 악장 & Lead Saxophone
- “구민상 Swing Step” 스윙밴드 리더 (정류1집 2011)
- 전 Yamaha Music Korea LTD. 전속 Demonstrator
- 백석대학 Conservatory 실용음악과 출강



출연진



사회자 문정현

- MoonAnnPowerSpeech [문정현아나운서파워스피치] 대표
- MBC아카데미CNM 아나운서교육팀장
- MBC어린이아나운서교실/ SK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
한국창의진로교육개발원/ 서울 선일초등학교 · 우솔초등학교 ·
백운초등학교 아나운서 교사

하우스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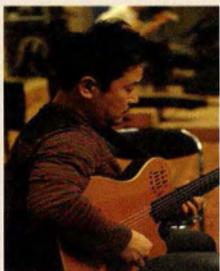
안상훈 drum & percussion

- Italia A.I.D.M Diploma , chitarra jazz Diploma
lunar-hill 앨범 발매 및 멤버
- 전) SBS “김윤아의 (music wave)” 세션
- 전)그룹 “GILL” 앨범 발매
- Newage ensemble “YAK” 앨범발매



차승엽 piano & composer

- 이탈리아 A.I.D.M Diploma
- 현) MBN 음악감독
- 전) SBS 김윤아의 뮤직웨이브 음악감독
- musical / 폴몬티, 못다이룬 사랑 등 recording&live
- Newage ensemble “YAK” 앨범발매



공정훈 guitar & composer

- Italia A.I.D.MDiploma / chitarra jazz Diploma
- 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국제예술원 출강
- 현) 소리랑 음악제작실 실장
- 전) SBS “김윤아의 (music wave)” session
- 광주 비엔날레 작품출품 “나비” / Fusion jazz band “12stage” /
Newage ensemble “YAK” /
- Contemporary jazz band “Twostep” 앨범발매 등



이상진 Bass & producer

- 현) 한국국제예술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 전) Band “Girl” 3집 bassist 활동 – pony canyon
- 애니메이션음반 Music Director
- 영화 “주노명 베이커리” 타이틀곡 / “와이키키 브라더스” O.S.T /
“Africa” O.S.T 삽입 / 영화 “김관장 vs. 김관장 vs. 김관장” O.S.T 전곡
- Cellist ‘홍성은 ‘과 “홍성은 Quintet”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개

-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경기도 지방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민과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를 지키고자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71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그리고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족문화 창달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사업의 지원자료 편간

● 2015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요사업 안내

▣ 향토문화연구 및 콘텐츠 제작

○ 경기향토사학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 논문집. 경기도 향토사를 위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경기도의 각종 향토문화역사자료를 조사, 연구.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경기도향토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경기도 문화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 경기도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 (연간 6차 연수 진행)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 경기도 지방문화원 국장, 직원, 신입직원 대상 연수
- 2015년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 경기도 지방문화원 임직원, 회원 대상 연수

○ <웹진>경기문화저널

: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문화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문화적인 삶,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담은 저널 발간

○ 경기도 시낭송의 밤<시가예찬>

: “문화원이 지역 인문의 중심에 서야 한다.” 는 슬로건 하에 경기도의회 의원 및 문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경기도의 문화원형을 매개로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문학적 정체성 및 저력을 발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림

▣ 향토문화보급 활성화 사업

○ 경기도 민속예술제

: 경기도내 각 시·군의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계승발전 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한 민속예술 경연의 장.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 “경기도의 전통예술, 전통문화는 문화원으로부터 시작된다.” 는 슬로건 하에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 문화원을 통한 지역 전통예술 육성 지원사업.

○ 페스티벌 31

: 경기도문화원축제로 공연예술, 전시부문의 1년간의 성과를 도민과 나누는 축제의 장. 융복합콜라보레이션기획공연인 ‘내가있는날31’ 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손 31’, ‘문화원이야기31’, ‘나이없는날31’ 의 4마당으로 구성되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수준 높은 공연전시콘텐츠.

○ 기획전시<미래유물전>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대안형 프로젝트로 출발한 기획전시로 기존 향토, 전통 문화,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형상화시켜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을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애뉴얼 리포트를 시작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화원 보유 자료를 재 맥락화, 재 구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열기 위한 사업

○ 경기도지방문화원총람

: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정량적 평가를 넘어, 정성적 평가까지 곁들인 고급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신개념 총괄 일람.

○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

: 경기도 지방문화원장, 국장, 직원 대상 선진지역(해외) 문화정책 탐방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

: 어르신 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현장 기획자와 컨설턴트가 함께 답을 찾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함.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  파주문화원

후원 :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PAJU 파주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획 :  문학과
360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 031-239-1020 팩스 : 031-239-3785

◎ 본 공연은 2015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